

民族主体性 教育에 있어서 主体性 概念 模型分析

吳 暻 鍾

目	次
I 問題의 陳述	2. 自体의 存在次元
II 既民族主体性 概念의 考察	3. 主体性의 定義
1. 相對的 主体性 概念	4. 絶對的 主体性 概念의 分析
2. 絶對的 主体性 概念	5. 主体性 評價의 準據
III 主体性 概念, 準據模型	IV 要約 및 結論
1. 主体性 概念定義의 問題点	

I 問題의 陳述

解放後 現在까지 教育에 있어서 主体性에 對한 論議 및 研究는 대체로 세 단계의 波高를 이루어 進行되어 왔다.

첫째, 政府樹立後 初代 文敎部長官의 文敎政策으로 “一民主義 教育”의 強調가 그 첫 단계이다. 이는 一民主義 教育 理念으로서 民族主体性을 되찾자는 데 있었다.

이런 主体性 問題가 當時 社會的으로 크게 대두된 背景은 獨立國의 國民으로서 또는 民族으로서 民族的 團結과 自主의인 國民精神이 무엇보다도 強調되었던 때이다.

이를 始初로 自由黨 時代 7代 文敎部 政策은 “一民主義, 民主主義, 民族主義 人格, 道義와 같은 精神계발이 무엇보다도 強調되어 왔다.

이와같이 이 단계에서 民族主体性 確立의 問題는 強調點을 달리하면서 文敎政策에 관련적으로는 強調되어 왔을 뿐 体系的인 民族主体性 研究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로, 1966年 文敎政策 方針으로 民族主体性을 強調한 것은 그 두 번째 고비다 할 수 있다. 이 때 社會的으로는 經濟的 自立과 아울러 韓日國交正常化 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때이다.

이 때 民族主体性의 問題는 精神啓發과 함께 政治的, 經濟的, 力量 즉 民族的 힘의 問題가

強調되었던 時期이고 文敎部가 主權하에 民族主体性 研究의 体系化를 試圖하였던 時期이며 民族主体性 問題에 關한 各種 論述, 研究, 單行本이 이 時期에 많이 發刊되었다.

예제로, 1972年 大統領 年頭 施政演說 內容中 “國籍 없는 敎育”에 對한 自体反省의 촉구에서 그 始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72年度에 民族主体性 問題와 關聯하에 가장 크게 強調된 問題는 民族史觀 定立의 問題를 들 수 있다. 民族的 自我發見을 通한 自覺위에 留意 甚, 韓國的인 것을 갖고 카우는데 그 強調點을 둔다고 할 수 있다.

解放後 現在까지 民族主体性 研究의 過程을 위와 같이 3 단계로 나눈다면 그 1세 단계는 民族主体性 研究의 綜合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民族主体性에 對한 研究도 많았고 이를 實踐하는 努力도 많이 쏟아 왔지만 結果的으로 무엇을 얻었나에 對하여 많은 反省과, 많은 사람들이 懷疑的인 疑問을 갖고 있다.

이 세계 단계의 앞으로의 主体性 研究의 課題는 民族主体性 確立에 對하에 이제까지 많이 研究하고 實踐하에 왔지만 우리가 解決하려는 問題는 그대로 담보상태에 있음에 對한 反省에서 根源的이고 核心的인 問題를 解決하는데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는 敎育界 内外의 要請에서 民族主体性 問題가 再거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民族主体性 敎育 및 研究에서 核心的인 問題는 主体性 概念의 定立이다.

主体性이란 概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理解하느냐는 것은 研究의 方向 또는 研究內容을 결정하는 重要한 關鍵이 된다. 主体性을 理解하는 데는 基本的으로 두 가지 立場으로 나누어 더 말할 수 있겠는데 “왜 主体性 確立의 問題가 論議의 對象이 되고 또 그것이 必要한가?”라는 質問에서 論議의 出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主体性 確立의 問題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問題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根本目標이다. 따라서 우리가 目的하고 있는 問題解決의 內容이 獨立性이란 用語로 表現代表 되든, 自主性으로 表現代表되든, 主体性으로 表現代表되든 우리가 意圖하는 問題解決의 內容은 同一하다는 立場이다.

또 하나의 立場은 主体性 確立의 問題는 근본적으로 主体性 概念本質의 규명을 前提해야 하더 主体性 本質의 규명이야말로 主体性 關聯問題 解決의 始發點이라는 立場이다.

論理的으로 이 두 가지 立場은 일련의 同一內容의 問題로서 그것은 問題意識과 問題의 陳述이 반드시 互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예로서 說明할 수 있다.

問題解決은 問題의 正確한 診斷, 問題의 解決方案等이 問題解決을 위한 일련의 重要한 要素라 하면 위의 두 가지 立場중 前者의 立場은 問題의 存在意識만으로 問題의 陳述을 確立하여 問題의 解決方案에 論議의 集中的인 關心을 둔 것으로 既主体性 研究는 大部分 이에 속한다.

反對로 後者의 立場은 主体性 關聯問題의 正確한 陳述에 集中的인 關心을 두는 立場으로서 이 分野에 대해서는 거의 研究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既民族主体性 研究의 主体性 概念을 分析, 評價함으로써 主体性 概念準據 및 評價準據를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더욱이 一線 教育 現場에서 民族主体性 研究가 활발히 展開되고 있는 바 主体性 概念準據 및 評價準據에 對한 高찰은 一線 教育現場의 民族主体性 研究에 理論的 基礎로 크게 公헌할 것으로 期待된다.

Ⅱ 既民族主体性 概念의 考察

過去의 民族主体性 研究에서 民族主体性의 뜻을 이해하는 立場을 크게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가 民族主体性은 어떤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들로 構成되고 있으며 이 特性이나 內容들을 갖추면 主体性이 確立된다는 立場이며 本稿에서는 이를 絕對的 主体性 概念이라 稱하기로 한다.

두번째는 民族主体性이란 어떤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條件들이 서로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어떤 特定한 “樣態” 또는 “樣狀”을 指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立場이다. 이런 立場에서 보면 民族主体性이란 “民族”(主体)과 “主体性”이란 獨立된 概念의 複合에서 그 意味를 찾아야 하고 “主体”와 “主体性”이란 概念을 分割해서 생각해야 하며 民族主体性의 경우 主体가 民族이며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이 民族, 즉 主体이지 主体性은 아니라는 立場이다. 이를 本稿에서는 相對的 主体性 概念이라 稱하기로 한다.

1. 相對的 主体性 概念(主体와 主体性)

主体 : 主体를 獨立의인 概念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主体와 他体(客体)를 對立시켜 놓고 이해하는 것으로 個人的으로 볼 때 “나”와 “너”의 對立概念에서 “나”의 存在에 해당하는 것이요, 集團 또는 民族을 對象으로 할 때는 “우리 民族(한민족)” “他民族”의 對立概念에서 “우리 民族”에 해당하는 것이다.

他体和 主体의 위치는 變更되는 것으로 存在의 單位로서는 獨立의이어서 어떤 個人 또는 集團도 主体의 單位가 될 수 있으며 서로 獨立의이다.

이렇게 獨立의인 主体의 單位는 他存在單位와 區別되는 그 나름대로 그 존재를 規定짓는 어떤 絕對的인 고유의 속성과 內容이 있다.

個人으로 볼 때 그 個人이 他人과 區別되는 그 나름의 속성과 內容이 存在하며 民族의 경우에는 他民族과 구별되는 그 民族 나름의 屬性과 內容이 存在한다.

主体性 : 主体性を 相對的인 概念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主体의 고유 屬性이나 內容은 어떻게 어느 程度 具現하고 있는가 즉 具現하는 程度 및 樣狀, 樣式을 主体性으로 이해한다는 立場이다.

主体性を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絶對的이고 一般的인 內容을 教育하거나 가르치면 主体性이 確立될 것이라고 하는 式의 主体性 理解를 否定的으로 보는 立場이다.

主体의 어떤 單位(個人·集團)에서나 그 主体의 特殊한 屬性을 무시하고 一般的으로 主体性을 결정짓는 共通的이고 絶對的인 內容의 存在를 否定하는 立場이다.

즉 “主体性≡特定內容”으로 이해하는 立場이다.

主体性を 相對的 概念으로 理解하는 사람들을 引用해 보면

“事實 主体性이라고 하는 말(韓國語, 中國語, 그리고 日本語에 있어서)에는 未來에 對處하기 위한 現在의 自己의 理解와 意識을 內包하고 있다.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靜的이 아니고 動的인 것이다. 그런데 實際上 主体性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靜的인 것, 過去의 歷史上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통 믿어지고 있다.

主体性이란 말의 譯語로서는 identity라는 말이 쓰여 지고 있는데 그 말의 一般的 뜻은 同一性이라는 것이며 이 말에는 動的이기 보다 靜的인 것, 미래에서가 아니고 過去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 주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말의 主体性의 번역으로서 적당한 말일지는 매우 의심스럽다.”¹⁾

여기서 主体性 概念이 靜的이 아니라는 말은 “主体性≡特定한 固有內容(靜的, 絶對的인 概念)”이라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으며 動的이라는 말은 어떤 狀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樣式 또는 樣狀이라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그러나 動的, 樣狀, 樣式이라는 말이 어떤 內容이 排除된 점점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內容이 特定한, 고정된 一般的인 內容이 아니라 主体를 規定하는 屬性이나 內容이 主体性 實現 이 樣狀 또는 樣式的 內容이 되며 따라서 이 內容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主体의 對象이 달라짐에 따라 이 내용 또한 流動的으로 달라진다는 말이다.

“現 段階의 우리 民族의 主体性, 過去 우리 民族主体性, 미래 우리 民族主体性의 內容이 다르다”²⁾라는 말은 主体性의 內容은 主体의 對象뿐만 아니라 時代의 始點에서도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主体를 規定하는 內容이 時間的인 要因에 의해서 다른 意味를 갖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主体性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形式으로, 말하자면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形式”³⁾을 意味한다.

1) 兪熙鍾, 한국과 동양(서울: 일조각 1972)p. 24

2) 3) 鄭明煥, “主体性 概念(과담회)”을 引用한 兪형진, 教育과 主体性(서울: 敎學社, 1968) p. 354

李奎浩는⁴⁾ 「社會化와 主体性」에서 “主体性=特定한 高유의 内容”으로 보는 主体性 概念에 대한 實体的 理解의 不當성을 지적하면서 “主体性이란 어떤 人格이 恒時 所有하고 있는 不變의 實体와 性格이라고 생각하는 在來의이고 인상적인 理解의 不부당성”을 지적하고 “主体性的 條件들을 社會的인 相互行動의 次元에서 發見되어야 한다. 즉 人間의 主体性은 社會的인 相互行動의 構造에 對應하는 個人的 機能 혹은 態度를 말한다. 性格처럼 所有하고 있거나 所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區別될 뿐이다.”

여기서 性格처럼 所有하고 있거나 所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主体性을 어떤 靜的인 高유의 内容이 아니라, 樣式이나 樣狀에 있어서 단지 區別될 뿐이다라고 理解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立場으로 李溶傑⁵⁾은 主体性은 知識과 意見과 態도와 믿음의 總本이며 社會의 모든 領域에서 行動化되는 思考方式이요 生活樣式이다”라고 主体性을 思考方式 또는 生活樣式으로 보고 있다.

李奎浩는 實存哲學的인 立場에서 主体性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主体性이란 말이 우리들 사이에 즐겨 사용되기 시작한지도 이제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概念이 分明하게 分析되거나 論理的으로 定義됨이 없이 流行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主体性”이란 概念은 그것을 哲學的으로 살펴보면 實存主義에서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다. 人間의 自由와 判斷과 行動을 客觀的인 法則에 의해서 被動的으로 決定되는 것으로 使用하지 않고 人間實存의 自由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態度를 主体性이라는 말로 表現한다. 따라서 이러한 主体性에 있어서는 客觀的인 理論體系가 問題가 아니고 自由로운 實存의 決斷이 問題인 것이다. 그러므로 主体性(Subjectivität)은 認識論的으로 分析하면 客觀主義 보다 主觀主義的인 傾向을 가졌다. 그리고 “主体性”이라는 概念에는 처음부터 客觀的인 法則이나 어떤 體系의인 理論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實存의 “自由”가 前提되어 있다.

그러나 個人的 實存에 있어서는 勿論이지만 어떤 集團에 있어서도 自由가 없으면 主体性은 생각될 수도 없다. 만약에 人間의 自由와 判斷과 行動이 여러 가지 客觀的인 條件들에 의해서 制約되고 決定되는 것이 事實이라면 人間의 實在的인 自由와 이를 前提로 한 “主体性은 늘 그러한 制約의 現實을 초월해서 指向하는 理想일는지 모른다. 集團, 곧 民族 共同体에 있어서도 그러하다”⁶⁾

主体는 存在의 實體를 意味하며, 관찰의 對象에 따라 相異한 存在單位를 이루고 있다. 이를 해면 人間과 集團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集團은 크기는 民族國家에서부터 共同目標를 갖고 있

4) 李奎浩, 社會化와 主体性(서울: 益文社, 1972) p. 66

5) 李溶傑 “學校教育和 國民主体 確立에 關한 一考” 중앙교육연구소, 所報, 26호, p. 6

6) 李奎浩 “民族主体性 教育” 敎育, 1971, 10월호, pp. 44~45

는 小集團에 이르기까지 그 種類는 多樣하다.

民族主体性에서 主体의 存在單位는 民族이다. 어떠한 存在單位에 있어서나 自体는 質存的 實체로서 存在하기 위해서 質存的 自体規定을 遂行해야 하고 이러한 質存的 自体規定의 內容은 自体의 存在單位를 決定한다.

文 承益⁷⁾은 그의 主体理論을 通하여 質存的 自体規定의 相異한 形態를 單位設定, 自己設定, 目的設定, 行動設定으로 나누고 있으며 自体란 이러한 質存的 自体規定의 過程을 通하여 서로 相異한 質存的 據點을 形成하게 되는데 自己設定의 所産은 單位意志의 形成, 行動設定의 所産은 自己行動의 形成이라는 質存的 據點을 樹立한다.

이렇게 相異한 質存的 自体規定에 따라 自体의 實체로서의 存在樣態(次元)을 決定짓게 되는데 이런 相異한 存在樣態(次元)을 物體的 次元, 原體的 次元, 我體的 次元, 本體的 次元, 基本的 次元이라 命名하고 있다.

自体의 質存的 實체의 據點을 이루고 있는 單位意識, 自己意識, 自己意志, 自己行動은 각각 두 개의 樣態를 지니고 있는데 自体가 갖고 있는 單位意識, 自己意識, 自己意志, 自己行動이 準據하는 對象과 主体 사이의 關係가 完全한 同一性으로 特徵적인 것 때 單位意識, 自己意識, 自己意志, 自己行動은 自我準據의이고 不同一性으로 特徵적인 것 때 單位意識, 自己意識, 自己意志, 自己行動은 他我準據의이다.

그는 主体性を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主体性은 自体가 存在할 수 있는 各 存在 次元에서 自我準據的 質存的 據點의 所有체로서 存在되는 상태다.”⁸⁾ 따라서 主体性에는 네 가지 相異한 次元이 있다.

原體的 主体性, 我體的 主体性, 本體的 主体性, 基本的 主体性이 곧 그것이다.

2. 絶對的 主体性 概念

여기서 絶對的이라는 말을 主体性を 어떤 主体單位에게나 共通的인 意味를 갖는 特定하고 固定된 一般的인 內容으로 본다는 말이다. 즉 “主体性=特定한, 固定한 一般的인 內容”과 같이 主体性 概念을 絶對的으로 理解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論議된 主体性的인 相對的인 概念理解가 主体性은 性格적인 所有하고 있거나 所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區別된 質인 것으로 보는데 대체적 여기서 絶對的인 概念으로 보는 立場은 “區別된 質만 아니라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柳 炯鎮에 의하면 “主体性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여 事大의 依他性을 의미하고 自主的 獨立과

7) 文承益, 主体理論, (서울: 아인각, 1970) 第一章 참조

8) 上揭書, p. 26

自活 自立하는 自覺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能力과 生活 態度를 지니는 特性을 말한다”⁹⁾ 여기서 “主体性=어떤 特性”으로 主体性を 理解하고 있으며 이런 立場에서 主体性を 理解하는 사람들은 大部分 主体性이란 어떤 特性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個人이나 民族은 막론하고 主体性이 없는 理由는 大略 두 가지 原因을 가지고 있다. 自活 自立할 수 있는 生活能力이 不足한 나머지, 남을 너무 숭배하는 事大主義, 依他主義 등으로 흐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남이 두렵고 무서워 無條件 獨善하고 排他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主体性を 確立하기 爲해서는 自己 것을 自覺하는 問題와 能力을 伸張하는 問題의 두 가지가 전 부되어야 한다”¹⁰⁾

既存 研究의 大部分이 이와 같이 主体性を 理解하는 立場의 類型에 屬하는데 이는 앞에서 論議한대로 主体性이 自主性으로 理解되는 獨立性으로 理解되는 主体性 概念의 本質이 問題가 아니다. 主体性이란 말이 왜 起源되며 왜 우리에게 必要한가의 質問에서 나올 수 있는 問題들에 集中的인 關心을 가지며 이런 問題의 解決이야말로 主体性에 關한 問題를 解決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民族主体性의 意義를 살펴 보면 民族은 言語, 宗教, 感情, 歷史, 理解가 共通된 하나의 文化的 共同体이며, 政治經濟의 共同体이다.

이를테면 韓國民族이 몇 차례 外來 侵略을 받아 왔고 특히 日本治下에서는 同化될 뻔도 했지만, 다른 民族과 區別될 수 있는 것은 우리 民族의 所有하고 있는 文化共同體의 價値와 特性에 分이다.

다음으로 主体性이란 認識論에서는 客觀에 對立하는 主觀, 團體나 機械 등의 總체가 되는 部分을 말한다. 따라서 變移하는 것에 對立해서 變하지 않는 것을 主体라고 하며 이런 主体의 資格을 지니는 것이 主体性 (Subjectivity) 이다. 즉 主体性이란 客體에 對한 主体의 本質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他力 依任意識의 反對가 된다.

그러므로 個人 또는 한 국민으로서의 自己判斷, 自己意識, 人間에 대한 自覺 또는 自体生命에 對한 尊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他體에 對한 認識과 自体의 認識 또는 主人精神, 自己發展의 要素, 獨立性, 自我覺醒, 自己保存 등을 이룬다.¹¹⁾

위 두 引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体性 概念을 “主体性=어떤 特性”으로 主体性を 理解하고 있으며 이런 立場에서 主体性を 理解하는 사람들은 大部分 主体性이란 어떤 特性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既存 研究의 大部分이 이와 같

9) 柳 炯鎔, 前掲書, p, 227

10) 王 揚書, p.

11) 박정락, 國民教育憲章의 思想的 背景과 그 實踐(상권)(서울: 교육출판사, 1971)p. 12~13

이 主体性を 絶對的인 概念으로 理解하는 立場의 類型에 屬하는 데 이는 앞에서 論議한대로 主体性이 自主性으로 理解되는 獨立性으로 理解되는 主体性 概念의 本質의 問題가 아니라 主体性이 何인 爲의 爲인이며 우리에게 何 必要한가의 質問에서 나올 수 있는 問題들에 集中的인 關心을 가지며 이런 問題의 解決이냐 말로 主体性에 關한 問題를 解決하는 爲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主体性を 絶對的 概念 즉 “主体性=特정한 内容 또는 特性”으로 보는 立場의 사람들은 그 主体性的 特性을 何 不同하며 論者의 專攻領域이나 思考의 關心에 따라서 各 主張하고 있다.

1) 主体性的 前提, 場面, 要件

主体性的 特性 또는 屬性을 어떻게 理解하느냐에 對해서는 論理의 不統一과 混亂이 介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既存의 主体性 理解의 觀點을 몇 개의 内容으로 分類하고자 한다.

즉 ① 主体性 具現의 前提 ② 主体性 具現의 要件 ③ 主体性 具現의 場面이 그것이다.¹²⁾

(1) 主体性 具現의 前提

가, 主從과 對等에서 對等의 關係¹³⁾

自와 他 사이에는 主從과 對等의 두 關係가 成立할 수 있다.

主從의 關係는 두 가지 原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他에 의한 自의 支配이고, 둘째는 他에 의한 自의 意志 또는 屈從이다. 따라서 主体性은 何 何에게 支配당하지 않고 또

12) 여기서 前提, 場面, 要件이 具體的으로 어떤 意圖下에 分類의 項目으로 採擇했는가를 “水泳”을 例로 들어보면,

前提: “水泳의 概念定立 問題인데 여러 사람이 水泳을 行한가 또는, 어떻게 說明하는 共通의인 何 하나의 前提가 있을 수 있는데 水泳은 何에 對하는 何의 事이다” 등이다. 하는 것이고 물에서라도 최소한도 “물 위에 뜬다”라는 狀態를 前提로 한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여러 形態의 水泳을 하든 즉 배달을 하든, 평영을 하든, 접영을 하든 최소한도 “물 위에 뜬다”라는 狀態는 水泳의 屬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前提”나 “屬性”을 같은 立場에서 理解하고자 한다.

△ 場面: 水泳에서 이 “場面”에 分類할 수 있는 何種 내용은 水泳의 種類 즉 接영이다, 평영이다, 배영이다를 指稱하는 것으로 우리가 說明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判別 할 수 있는 事인 경우에서는 明確히 “수영의 종류”로 表現할 수 있지만 일단 “수위성”이 무엇인가가 定立이 안된 場태를 前提한다면 “종류”란 말은 何에 對해서 何의 事인가가 判別된 후에 쓸 수 있는 용어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장면”이라는 용어를 쓴다.

△ 要件: 여기서 要件이라 함은 必要의 事인 自身의 內的 要件 즉 수영자의 體格이라든지, 수영자의 體格조건, 수영자의 수영을 하거나 하는 判斷力, 즉 수영하는 態度라든지 “수영할지”라는 行動을 行하게 되는 수영자의 意志이다. 앞에 示술한 前提나 場面등이 수영자(主體) 外的인 客觀的 事實이라 하면 여기서 要件은 수영자(主體)의 內的 要件을 意味한다.

13) 李溶傑 前揭文, p. 20

스스로 남에게 依存하거나 屈從하지도 않고서 나를 남과 對等한 位置에 두어야만 確立될 수 있다.

이 非支配—不屈從의 原則은 최소한도 主体性 구현의 前提가 된다.

나, 政治的 獨立, 經濟的 自立, 文化的 獨自性

主体性은 우선 政治的 獨立, 經濟的 自立, 文化的 獨立 등 힘과 能力을 바탕으로 해야 主体性 구현이 可能하다는 論著와 政治的 獨立, 經濟的 自立, 文化的 獨自性이 바로 主体性 쓰는 主体性의 一部이다라고 보는 論著로 大別할 수 있다.

다, 主体性的 屬性

여기 前提에 속하는 內容을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 表現하는 論著도 있다.

즉 政治的인 獨立, 經濟的인 自立, 文化的인 獨自性에서 獨立, 自立, 獨自性 등이 이에 속한다.

“主体性이 內包한 內容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主体性이 가지고 있는 屬性이 있다. 우선 獨立性이라고 하는 屬性和 둘째로 自己保存과 自己發展 셋째로 取捨選擇이다.”¹⁴⁾

(2) 主体性 具現의 場面

가, 受容의 主体性和 調和的 變化的 主体性¹⁵⁾

民族主体性的 問題는 近代化 問題와 密接한 關聯을 갖는다. 즉 現存과 新來가 近代化의 促進을 爲해서 調和되기 위해서는 調和를 할 수 있는 主体性이 필요하다.

즉 主体性에는 두 가지의 側面이 있다. 受容의 主体性和 調和的 變化的 主体性이다. 前者가 잘못되어 있으면 對外的으로 노쇠해지고 後者가 잘못되어 있으면 對內的으로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

(3) 主体性 具現의 要件

가, 觀念的인 面과 實際的인 面¹⁶⁾

觀念的인 面에서의 主体意識과 實際的인 面, 즉 政治的 獨立, 經濟的 自立과는 相互關聯이 있지만 바로 直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立場에서 觀念的인 主体意識은 主体性的의 要件이며 政治的 獨立, 經濟的인 自立등 實際的인 面이 主体性이라 理解하고 있는 論者도 있다.

나, 個別的 主体意識과 集團的 主体意識¹⁷⁾

主体性은 크게 둘로 나누어 우리에 對한 主体意識과 나에 對한 主体意識 즉 集團的 主体意識

14) 변형윤 “주체성의 概念”좌담회, 유형진 前揭書, p. 353

15) 李溶傑, 前揭書, p. 29

16) 한우근 “主体性 概念”좌담회, 유형진 前揭書, p. 351

17) 柳炯鎮, 前揭書, p. 312

와 有別的 主體意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主人精神¹⁸⁾

主體意識의 概念을 準하시고 正確하게 表現한 것이 “主人精神”이며 主人精神은 ① 獨立精神
② 責任精神(民族社會에 對한 責任心)이라 하고 있다.

다. 主體人의 資質¹⁹⁾

이러지 않으니 “資質”을 主體人의 “資質”로 表現하는 論者도 있다.

主體人의 資質은 韓國 人間으로서의 基本姿勢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요 現代의 敎養人으로서의 修身論 實踐의 道 在於는 科學的인 思考方式에 익숙한 人間으로서의 訓練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集團에 對한 集團的 主體性²⁰⁾

集團的 主體性이란 個人이 集團에 속해 있으므로 因하여 集團을 集團으로서 自發意識
이다. 個別的 主體性은 個人을 單位로 하는 自我意識이고 自發的인 集團的 主體性은 集團을 單位로
생각하는 主體性이다.

集團的 主體性은 民族의 主體性, 國民的 主體性, 公民的 主體性, 社會的 主體性, 小集團的
主體性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集團的 主體性은 實際生活의 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 ㉠ 民族意識과 主人意識
- ㉡ 同胞愛와 韓國人
- ㉢ 國家愛
- ㉣ 金甯忠 史觀과 固有文化 愛護
- ㉤ 鄉土愛
- ㉥ 國民的 自尊心
- ㉦ 國際協力 精神

(4) 要 約

以上の 過去 主體性 研究에서 언급된 主體性의 特征, 즉 特定 內容을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8) 柳炯鎮 “안도산의 敎育思想” 敎育학연구, 제 5 권 1 호 p. 3

19) 柳炯鎮, 前揭書, p. 9

20) 上揭書, p. 314

찾는 것과 樹立하는 것은 물론 그 意味가 다르다. 즉 前者가 過去에 있었으나 지금 상실된 것을 파찾는 過程을 이야기 하는데 비해서 後者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創造過程을 이야기 한다.

3) 主体性이 전혀 없다는 것은 文化民族의 경우 상상하기 어렵다.

혹자는 우리 民族의 主体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 弱화되었다라는 말을 쓴다. 약화되었다에서 “弱化”는 어떤 狀態의 程度를 나타내는 말이다.

박나자 未稿에서는 主体性의 자기 다른 樣狀이나 程度를 區分하여 주는 어떤 準據를 提示할 수 있는 主体性 概念定義를 期待하며 이 期待에 부응하여 文丞益²¹⁾의 主体理論 모델을 택한다.

2. 自體의 存在次元

우리는 다른 名으로부터 區別하고 名을 다르부터 區別하기 위해서 몇 가지 人稱代名詞를 사용한다.

“나”, “당신”, “그들” 등은 모두가 다른 나 이외의 物體들로 區別하기 위한 單語들이다. 내가 나를 名으로부터 區別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하나의 自己的 實體로서 存在하기 때문이다.

自己的 實體로서 存在하는 “나”를 自體라 부른다. 自體의 概念을 人間 世界에만 局限시킬 때 몇 가지 서로 다른 自體의 單位가 있다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人間 世界에서 自體의 單位들 여러가지 다른 方法으로 區分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한 사람(個人), 한 集團, 그리고 集團의 特殊形態인 國家, 이렇게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自體는 몇 가지 相異한 存在次元을 所有하고 또 이러한 各 存在次元에서 몇 가지 相異한 樣式으로 存在한다.

〈自體의 存在次元〉

實 存 的 自 體 規 定	實 存 的 據 點	存 在 次 元
—	—	物 體 的 次 元
單 位 設 定	單 位 意 識	原 體 的 次 元
自 己 設 定	自 己 意 識	我 體 的 次 元
目 標 設 定	自 己 意 志	本 體 的 次 元
行 動 設 定	自 己 行 動	基 體 的 次 元

21) 文丞益, 主体理論(서울:아인각, 1970) 以下の 主体理論은 本稿를 참조한 것임.

1) 物体的 次元

自体가 存在할 수 있는 가장 根本的인 次元은 自体가 단순히 物体로 存在하는 次元이다. 物体的 次元에서는 自体는 아직 個人이라든가 集團이라는 自体의 單位가 設定 안된 狀態에서의 自体이다. 다시 말하면 物体的 次元이란 “人間” 또는 “人間的 모임”이라는 自体의 根本的 單位가 設定 안된 存在次元이다.

이 物体的 次元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은 客觀的인 狀況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自進的인 수도 있다. 아프리카 해빈에서 新美大陸 수출 目的으로 흑색 原住民을 사냥한 도에 상인들은 그들이 생포한 수렵물을 勞動力을 占有하는 物体로 強硬規定하였고 또 더욱 그렇게 사로잡혀 왔던 흑인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政治 理論은 팔팔 위주는 古典學者가 되어 있었다 해도 되지만 農場主人으로 부터 自己보다 될 유익한 同僚 흑인들과 똑같이 勞動力을 所有하는 物体 이상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다.

自体의 單位가 集團인 경우에도 自体는 物体的 次元에서만 存在할 수 있다. 이러한 自体는 아직 “集團”이라는 單位가 設定안된 狀態에서의 自体이다.

누 사면 以上の 모임이 아무런 團體的 유해가 없이 이루어질 때 그런 모임은 單位가 集團인 自体가 物体的 次元에서 존재하는 경우이다.

一般的으로 “너는 먹고 나는 나다”라는 風潮가 만연하는 狀態에서의 集團은 모두 物体的 次元에서 存在하는 自体이다. 犯罪를 눈앞에 보기도 배연할 수 있는 것은 누 가지 병폐의 증세다.

첫째는 團體生活를 유물하는 根本的 規範의 崩壞다. 둘째는 團體 안에서의 個人과 個人 사이의 유대 崩壞다. 團體生活의 規範이 効果的으로 崩壞되었기 때문에 犯罪의 희생자를 목격하고도 無感覺할 수 있다. 物体的 次元은 自体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根源的인 存在次元이다. 物体的 次元에서 存在하는 自体는 아직 自体의 單位가 명백히 設定 안되었거나 効果的으로 崩壞되어 있는 狀態에서의 自体로서 단순히 物体로서 存在하는 自体를 뜻한다. 物体的 次元에서의 自体의 존재는 自動的이다. 즉 物体 또는 生物체로서의 自体는 物体 또는 生物 또는 生物체라는 理由만으로 이루어진 다른 條件 없이도 物体的 次元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物体的次元 以外的 存在次元에서는 自体의 存在가 自動的이 아니다. 즉 自体의 物体的이나 生物体的이 아닌 自体의 존재는 自動的이 아니고 條件的이다. 이것은 自体가 自体的인 存在樣式을 구구할 때 “自体”와 “自体的” 사이에 同一性を 樹立해야 하기 때문이다.

自体가 自体로서의 同一性を 樹立할 때 自体는 어떤 種類의 實存的 自体 規定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實存的 自体規定의 內容은 自体의 存在次元을 決定한다. 그러면 實存的 自体規定에는 어떠한 形態가 있는가.

2) 原体的 次元

것의 實存的 自体規定은 單位設定이다. 單位設定 過程에서 自体는 特殊한 범주에 屬하는 實체로서의 自己를 設定한다. 이러한 單位設定 過程의 所産은 單位意識의 形成이다. 自体가 單位意識의 所有체로 存在하는 次元을 “原体的 次元”이라 부른다. 自体가 原体的 次元에서 自体라는 同一性을 所有하는 것은 自体가 갖는 單位意識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單位意識은 原体的 次元에서 갖는 自体의 實存的 據点이다. 즉 自体는 原体的 次元에서는 “單位意識—人間” 또는 “集團意識”이라는 實存的 據点的 所有체로서 存在할 수 있다.

3) 我体的 次元

둘의 實存的 自体規定은 自己設定이다. 自己設定 過程에서 自体는 單位意識의 所有체로서 他체로부터 區別되는 自己를 設定한다.

이러한 自己設定의 所産은 自己意識의 形成이다. 自体가 自己意識의 所有체로서 존재하는 次元을 “我体的 次元”이라 부른다.

自己意識은 自体가 我体的 次元에서 갖는 實存的 據点은 “나” “나의 集團” “네나리” 등에서의 “나”라는 意識이 一般化한 單位意識이다. “나”는 固有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 남으로부터 區別되는 “나”라는 意識 “나의 集團”意識, “네나리”는 남의 차이를 區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 固有한 “네나리”라는 意識, 이러한 경우의 “나”라는 意識은 特殊化한 單位意識, 즉 自己意識이다.

4) 本体的 次元

체계의 實存的 自体規定은 目的設定이다. 目的設定 과정에서 自体는 自己意識의 所有체로서 自体가 갖는 미래적 行動路線을 選擇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目的設定의 所産은 自己意志의 形成이다. 自体가 自己意志는 自体가 本体的 次元에서 갖는 實存的 據点이다. 이의 次인 我体的 次元 다음 存在次元에서 自体는 自己意志 所有체로 존재할 수 있다. 自己意志는 구체적 目標을 향할 미래적 행동과정을 設定함으로써 이루어지는 自己意識의 의지적 表現이다. 따라서 自己意志는 一般的으로 自意的 目標設定의 能力과 自意的 目標設定의 과정을 모두 前提로 한다.

5) 基本的 次元

마지막 實存的 自体規定은 行動設定이다. 行動設定 과정에서 자체는 自己意志를 現實의 行動으로 實踐한다. 이러한 行動設定의 所産은 自己行動의 形成이다. 자체가 自己行動의 所有체로서 존재하는 次元을 基本的 次元이라 부른다.

基本的 次元에서 자체가 “自存的”인 實체로 존재하는 것은 자체가 所有하는 自己行動 때문이

基体에로의 변천은 我体에서 本体에로의 변천보다 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상 前者는 後者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라 할만하다. 내가 나의 自我準據의 自己意志를 行動으로 옮길 때 즉 내가 基体的 主体로 存在하려 할 때—行動화된 나의 의지는 집중관주 個体的 行動화된 자기의지—즉 基体的 主体로 存在하려는 他体—와 相克되고 충돌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事實이다. 自体的 單位가 集團인 경우에는 自我準據의 自己行動이 좌절되는 예는 허다하다. 특히 自体的 單位가 國家인 경우 國家的 自己行動이 좌절되는 예는 歷史上에도 많고, 또 지금 이 時間에도 부수히 存在한다. 병절기라는 現實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약소국가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모두가 自己行動의 좌절을 감수해야 할 立場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4. 絶對的 主体性 概念의 分析

1) 經濟的 自立, 政治的 獨立

自己規定의 段階를 我体的 次元, 目的設定의 段階를 本体的 次元, 自己行動의 實現段階를 基体的 次元이라 한다면 經濟的 自立, 政治的 獨立은 基体的 次元에 關聯된 內容이다.

經濟的 自立, 政治的 獨立은 힘에 關係되는 局面을 말한다. 힘에는 여러 가지 種類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經濟力, 軍事力, 政治權力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가지 相異한 種類의 힘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모든 種類의 힘은 두 가지 根本的인 共通屬性을 갖는다.

첫째, 모든 形態의 힘은 他体가 (또는 自体가) 自体的 (또는 他体的) 意志와 願望에 關係없이 自体 (또는 他体) 로 하여금 所定의 行動을 遂行하게끔 強制할 수 있는 手段과 方便이다.

둘째, 모든 形態의 힘은 現實的인 自体—他体 關係에서 行動의 水準(基体的 次元)에서 具體的인 內容이 表現된다.

主体性 功利的 爲한 他体的 道具로서 基体的 次元에서는 “行動의 規制”를 必要로 한다. 여기서 政治的 獨立은 自体가 自己目的의 行動化(自己行動)를 爲해서 他体的 禁制에 依한 自体的 自己行動의 박탈을 방어하기 爲한 最小限度의 必要條件을 意味한다.

經濟的 自立은 自体가 自己目的의 行動化(自己行動)을 爲해서 他体的 報賞에 依한 탐익을 방어하기 爲한 最小限度의 必要條件을 意味한다. 이는 自体的 行動의 表現이 主体—屬体로 規定되는 主体—他体 關係의 屬体狀況으로의 轉落을 防衛하기 爲한 最小限度의 必要條件을 意味한다.

2) 對等의 關係維持, 非支配—不屈從의 原則

“主体性”은 他体와는 斷絶되어 存在하는 自体를 가정하고 그러한 自体가 갖는 어떤 存在樣式

上) 特性에 突出을 띤 개념이고 “主體狀況”은 主體의 各 存在次元에서 主體—主體로서 主體—他體 사이의 存在樣式이다.

主體—他體 關係에서 對等의 關係를 持한 主體狀況을 指稱하는 것이다. 즉 各 存在次元에서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點의 所有체로서의 主體가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點의 所有체로서의 他體와 共存하는 主體—他體 關係를 말한다.

이런데 主體의 自己規定에 한 側面의 局面이 있을 수 있다. 즉 自己規範, 自己理想, 自己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데 自己理想과 自己이미지의 據點인 自己規範에는 한 가지 限이한 種類가 있을 수 있다. 즉 利己的 自己規範과 自己的 自己規範이다.

이 두 가지 相異한 自己規範의 據點은 自己規定을 持한 實存的 據點으로서의 實, 存在하는 主體로서의 自己規定이다. 그러나 實存의 實으로서, 現存하는 實으로서 自己規定이다.

그러나 實存의 實으로서, 現存의 實으로서 한 實 對象의 한 方面으로 意識할 수 있다. 즉 事物의 所有체로서의 主體의 自己規範은 存在의 主體로서의 主體—自己的 自己規定이다.

이러한 實存의 實의 關係對象의 實인 實存 (1) 主體性과 利己的 “나”와 主體性의 自己的 “나” 사이의 關係와 (2) 主體狀況과 利己的 “나”와 主體狀況과 自己的 “나” 사이의 關係이다.

主體性에서 主體의 實存的 據點의 “自己的”實으로 해서 自我準據的 實으로 오지만 “利己的”實으로 해서의 自我準據的 實으로 오다. 즉 主體性은 自己的 “나”의 實存의 實인 利己的 “나”의 實으로 상승한다.

수직적 主體狀況의 實存의 實의 事象은 實 實인 것이다. 수직적 主體狀況은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點의 所有체로서의 他體와 共存하는 主體—他體 關係와 利己的 “나”와 主體狀況 사이의 實存의 實인 實存을 表明한다.

이것은 自己的 “나”의 自己擴張領域의 實인 實으로 利己的 “나”의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點을 包含하기 때문이다. 즉 利己的 “나”로서의 自己規定이 實存하는 狀況에서는 主體狀況은 主體性으로 不可能하다.

그리고 主體狀況과 利己的 “나” 사이의 根本的 實存의 實은 利己的 “나”의 行動의 表現에서 가장 明確하고도 具體적으로 나타낸다. 즉 利己的 “나”의 實存의 實인 實인 結果는 基體의 次元에서 主體—他體 關係가 支配—非支配, 支配—服從, 支配—從屬의 形態로 具體化 된다.

主體性뿐만 아니라 主體狀況의 實存의 實인 實인 價值體系를 “主體의 價值體系”라 한다면 主體의 價值體系는 다음 세 가지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 ① 自己的 “나”에 根據한 自己規定과 實存의 實인 實인 것.
- ② 自己的 “나”의 意志의 表現인 것.
- ③ 그 行動의 表現에 主體—主體로 規定되는 主體—他體 關係로 結果되어야 한다.

나라이기 非支配—不從屬의 原則은 基體의 次元에서 主體狀況과 關聯된 局面을 表明한다.

다. 自己行動은 自己意志가 설정하는 目的을 現實的 事態로 옮기는 能力 및 그 과정을 意味한다.

3. 主体性的 定義

主体性은 자체가 存在할 수 있는 各 存在次元에서 자체가 (그 單位가 무엇이든간에)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点의 所有체로서 存在하는 狀態다.

따라서 主体性에는 네 가지 相異한 次元이 있다. 이것을 原体的 主体性, 我体的 主体性, 本体的 主体性 그리고 基本的 主体性이라 구분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포로 要約하면

〈主体性的 次元〉

自 体 的 存 在 次 元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点	自 体 的 存 在 樣 式
原 体 的 次 元	單 位 意 識	原 体 的 主 体 性
我 体 的 次 元	自 己 意 識	我 体 的 主 体 性
本 体 的 次 元	自 己 意 志	本 体 的 主 体 性
基 体 的 次 元	自 己 行 動	基 体 的 主 体 性

1) 原体的 次元에서

自体的 單位가 個人인 경우 原体는 單位意識이라는 實存的 據点의 所有체로 原体的 次元에서 存在한다. 그런데 原体가 所有하는 實存的 據点이 自我準據的인 實存的 據点은 “人間意識”이고 原体는 이러한 人間意識의 所有체 즉 原体的 主体는 變質된다. 요컨대 “나는 人間이다”라는 주장이다. 自体的 單位가 集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家風” “校風” “傳統” 등은 모두가 原体的 集團의 존속을 前提로 하는 概念들이고, 좀더 具體的으로 原体的 集團의 自我準據的 實存的 據点을 여러가지 形態로 다르게 나타낸 單語들이다.

2) 我体的 次元에서

我体的 次元에서 自体的 實存的 據点은 自己意識이다. 自己意識은 自己를 남으로부터 또는 남을 자기로부터 區別하는 “나”의 意識이다. 그리고 自我準據的 自己意識이란 이러한 “나”의식의 對象이 “나”意識의 主体에 準據하는 경우의 自己意識이다. 그런데 自己意識에 自我準據的인 수 있는 理由는 自体가 갖는 實存的 據点 즉 自己意識—이 自体에게 어떤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價値—自我準據的 價値가 있기 때문이다.

個人으로서 멋있게 “나는 나다”라고 말 할 수 있으려면 내가 我体的 次元에서 自我準據的

3) 獨立性, 自己保存, 自己發展

(1) 獨立性

獨立性은 經濟的 自立이나 政治的 獨立 등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힘을 必要로 하는 次元으로서 行動의 表現이나 實現의 局面에 關係되는 것으로 基體的 次元의 關聯 問題이다.

基體的 次元에서 主体性的 問題는 그 行動이 自我準據의 임을 前提하는데 獨立性은 行動의 實存的 據點에 關聯된 問題가 아니라 自己意志 實現을 爲한 힘의 必要를 強調하는 것으로 즉 非體化나 屬體化 防止의 最少限度의 必要條件을 提示하는 것으로 主体性이 있다 없다는 狀態나 存在樣式을 說明하지는 못하고 있다.

(2) 自己保全, 自己發展

自己保存이나 自己發展은 궁극적으로 같은 內容을 指稱하는 概念이다.

自己保存은 我體的 次元에서 自我準據의 實存的 거점으로서 自己規定을 強調하는 것이고 自己發展은 自己規定에서 自己擴張의 가치를 強調한 것이다.

4) 借用的 主体性和 調和的 發展의 主体性

借用的 主体性和 調和的 發展의 主体性을 傳統과 發展이라는 兩局面에서 야기되는 主体性을 말하는 것이며 借用的 主体性은 自己規定의 段階인 我體的 次元에서 自我準據의 實存的 據點의 所有者로서의 主体를 強調한 것이다.

調和的 發展의 主体性은 自己目的 設定段階인 本體的 次元에서 自我準據의 實存的 據點의 所有者로서의 主体를 強調한 것이다.

5. 主体性 評價의 準據

自体가 存在하는 樣狀 즉 네 가지의 存在次元에 따라 主体性은 네 가지의 相異한 次元 또는 水準을 갖는다.

또한 主体는 存在次元이 무엇이든지간에 自体와 自體的 實存的 據點사이의 相互關係 樣狀이 自我準據의 일 때 主体性을 保有하게 된다. 따라서 各 存在次元에 따라 自我準據의 單位意識, 自己意識, 自己意志, 自己行動은 次元別 主体性的 準據가 된다. 次元別 主体性的 準據를 들어 보면

1) 原體的 次元 (單位意識)

民族(國家) 單位의 構成員이 所有하고 있는 單位意識이 準據라는 對象과 主体(民族 또는 國家) 사이의 關係가 完全히 同一性으로 특징지워질 때의 民族(國家) 共同體 意識이 自我準據

的單位意識이다.

2) 我体的 次元 (自己意識)

이체의 實存인 民族(國家)과 民族(國家)意識 사이의 同一性이 이루어질 때 民族(國家)意識은 自我準據的 自己意識이다. 이 때 民族(國家)과 民族(國家)意識 사이의 連結하는 것은 民族이 所有하는 自体規定이다.

3) 本体的 次元 (自己意志)

自体가 目的設定을 遂行할 때 그러한 目的의 內容을 決定하는 것은 自体의 內的 要求이며 自体의 內的 要求가 무엇인지를 通知하고 이를 準據해서 自体의 目的을 실현 遂行目標을 向해서 또는 어떤 特殊한 途程에 따라 그것을 組織하는 것은 自我準據的 自己意志이다.

즉 民族(國家)의 目的設定의 內容이 構成員 각각의 共同으로 所有하는 意志가 同一性이 이루어질 때 이 目的設定은 自我準據的 自己意志이다.

4) 基体的 次元 (自己行動)

民族(國家)行動이 準據하는 對象과 主体(民族, 國家) 사이의 關係가 完全한 同一性으로 이루어질 때 自己行動(民族, 國家行動)은 自我準據的이다.

즉 民族(國家)의 行動 및 그 構成員의 集團行動이 自体의 目的設定 內容과 同一性으로 특정지워질 때 民族(國家)行動 및 集團行動은 自我準據的이다.

以上은 次元별 主体性的 準據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主体性的 確認 및 評價에 있어서 主体性的 缺如問題를 어떻게 確認, 評價할 것인가? 例를 들어 民族意識이 缺如된 狀態와 民族 또는 國家가 設定한 目標과 相反하는 構成員의 行動을 같은 基準의 主体性 缺如로 볼 것인가?

우리는 各各 相異한 存在次元에 따라 각각 다른 4가지의 相異한 主体性を 設定하였다. 따라서 主体性的 缺如問題는 어느 次元, 또는 어느 基準에서 主体性的 缺如하였는지를 確認한 필요가 있다. 각각 다른 次元 또는 基準에서의 主体 評價의 準據를 알아보면

(1) 原体的 次元(單位意識) 主体性

▷ 民族(國家) 共同体 意識의 同一性 이루어

▷ 소수집단 (minority group : 一民族, 學閥, 地緣等)의 集團意識이 民族(國家)意識을 壓勝하고 있는가의 여부

萬一 소수集團 意識이 民族 또는 國家 共同体 意識에 우선하고 있다면 그 民族(國家)은 單位意識이 自我準據的이 아니며 原体的 次元의 主体性を 保存하고 있지 않다.

(2) 我体的 次元 (自己意識) 主体性

○ 우리 民族(國家)의 自己規定의 內容은 무엇인가?

主体性의 問題는 主体의 自体規定內容을 떠나서는 說明될 수 없다. 나의 主体性, 너의 主体性, 우리의 主体性, 美國의 主体性이란 말을 운위할 때 나, 너, 우리, 미국의 特性 내지 속성(내용)을 무시하고 主体性を 論할 수 없다. 主体 缺如問題의 確認 및 評價에 있어서는 우선 自体規定의 內容을 파악 說明해야 한다. 自体의 自己規定은 自体의 規範, 理想, image에 關聯시켜 파악해야 한다. 例를 들어 우리 민족(國家)의 自体規定內容 規範, 理想, image의 內容은 이러 이러한데, 우리 民族(國家)의 構成員이 意識하는, 韓民族(大韓民國)의 規定內容이 上記의 내용과 相異하다면 우리 民族(國家)는 自己意識이 自我準據의 이 아니고 따라서 我体的 次元에서 主体性を 缺如했다고 할 수 있다.

(3) 本体的 次元 (自己意志) 主体性

◎ 우리 民族(國家)의 內的 要求(必要, 慾求, 價値)는 무엇인가?

◎ 우리 民族(國家)의 目的 設定의 內容은 무엇인가?

◎ 目的 設定內容과 內的 要求의 合致度 與否

◎ 民族(國家)의 內的 要求와 個人的 意志와 同一性 與否

民族(國家)의 目的設定의 內容이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意志와 同一性으로 이루어질 때 이 目的設定은 自我準據의 이요 그렇지 못하고 서로 相異하면 他我準據의 이다. 따라서 이 水準에서의 主体性의 評價를 爲해서는 우리 民族(國家)의 內的 要求와 民族(國家)의 目的設定內容이 무엇인가를 確認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으로 內的 要求와 目的設定의 內容이 合致하는가를 確認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으로 內的 要求와 構成員 個人的 意志와 同一性여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4) 基体的 次元(自己行動) 主体性

◎ 個人 또는 集團行動과 民族(國家)의 目的設定 內容과의 同一性 여부

◎ 民族(國家)의 目的遂行 能力에 對한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不信 여부

基体的 次元에서 自己行動이 自我準據의 이기 爲해서는 個人 또는 集團行動이 民族(國家)이 設定해 놓은 目的內容과 서로 符合해야 한다. 萬一 民族(國家)이 設定해 놓은 目的 內容과 個人 또는 集團行動이 서로 有離되었거나 서로 相離되었다면 民族 또는 國家行動은 他我準據의 이다.

다음으로 民族(國家)의 目的遂行 能力에 對한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不信이 심하다면 그 民族 또는 國家의 行動은 他我準據의 行動이다.

以上에 열거한 次元別 主体性의 準據 및 評價準據를 表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次元別 主体性的 準據 및 評價準據

存在次元	次元別 主体性的 準據	評價의 準據
原位的次元 (單位意識)	㉔ 民族(國家)單位的 構成員이 所有하고 있는 單位意識이 準據하는 對象과 主体(民族, 國家)사이의 關係가 完全히 同一性으로 특징지워질 때의 民族(國家)공동체 意識이 自我準據的 單位意識이다.	㉔ 民族(國家)공동체 意識의 同一性 여부 ● minority group(氏族, 學閥, 地緣等)의 集團意識이 民族(國家)意識을 壓勝하고 있는가의 여부 ● 民族意識과 國家意識과의 同一性 여부
自我的次元 (自己意識)	㉕ 하나의 實體인 民族(國家)과 民族(國家)意識 사이의 同一性이 이루어질 때 民族(國家)意識은 自我準據的 自己意識이다. 이 때 民族(國家)과 民族(國家)意識 사이의 連語하는 것은 民族이 所有하는 自己規定이다.	㉕ 우리 民族(國家)의 自己規定의 內容은 무엇인가 規 範 理 想 image ● 있는 그대로 (그렇게 되고자 (他에 그렇게 보이는) 民族(國家)像 또는 民族(國家)像 또는 內容 ● 自己의 歷史, 傳統 ● 自己가 적해 있는 自己의 狀況 ㉖ 우리 民族의 自己規定 內容과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그것과의 同一性 여부
本体的次元 (自己意志)	㉗ 自己가 目的設定을 遂行할 때 고려한 目的의 內容을 決定하는 것은 自己의 內의 要求이며 自己의 內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感知하고 이에 準據해서 自己의 에너지를 어떤 特殊目標을 향해서, 또는 어떤 特殊한 道程에 따르게끔 組織하는 것은 自我準據的 自己意志다 즉 民族(國家)의 目的設定의 內容이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意志와 同一性이 이루어질 때 이 目的設定은 自我準據的 自己意志다.	㉗ 우리 民族(國家)의 目的 設定의 內의 要求는 무엇인가? 必 要 慾 求 價 值 ㉘ 우리 民族(國家)의 目的設定의 內容은 무엇인가? ㉙ 目的設定 內容과 內의 要求의 合致度 與否 ㉚ 民族(國家)의 內의 要求와 個人의 意志와 同一性 與否
基体的次元 (自己行動)	㉛ 民族(國家)行動이 準據하는 對象과 主体(民族, 國家) 사이의 關係가 完全히 同一性으로 이루어질 때 自己行動(民族, 國家行動)은 自我準據的이다. 즉 民族(國家)의 行動 및 그 構成員의 集團行動이 自己의 目的設定內容과 同一性으로 특징지워질 때 民族(國家)行動 및 集團行動은 自我準據的이다.	㉛ 個人 또는 集團行動과 民族(國家)의 目的設定內容과의 同一性 與否 ㉜ 民族(國家)의 目的遂行 能力에 對한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不信 與否

Ⅳ 要約 및 結論

既民族主体性 研究의 內容을 分類해 보면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는데

첫째, 民族主体性 論議의 背景:—民族主体性 確立에 對한 論議가 왜 대두되고 있는가에 對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問題를 갖고 있기 때문에 民族主体性을 確立해야 되는가”에서 “어떤 問題”에 對해서 現象學的으로 論述하는 경우이고

둘째, 民族主体性의 뜻과 內容:—우리 또는 우리 民族이 이런 問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民族主体性 確立이라는 問題가 대두되는 것인데 民族主体性이란 “이런 뜻”이고 또 “이런 內容”이라는 論述의 경우이다. 즉 民族主体性의 뜻이나 內容에 對한 論述이다.

셋째, 民族主体性 涵양을 爲한 教育內容:—民族主体性은 이런 뜻이고 이런 內容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確立하거나 涵양하기 爲해서는 이런 教育을 해야 한다라는 論述이다.

以上에서 民族主体性 論議의 背景 즉 民族主体性 確立에 對한 論議가 왜 대두되고 왜 必要한가에 對한 理由를 說明하는 內容을 綜合해 보면

- 事大主義가 만연하고 있다.
- 外來文化를 盲目的으로 流入하고 있다.
- 個人的인 利己主義 思想이 팽배하고 있다.
- 民族 共同体 意識이 不足하다.
- 우리 民族으로서의 긍지 및 우리 民族의 可能性에 對한 自覺이 不足하다 (民族史觀 定立 問題)

다음으로 民族主体性 涵양을 爲한 教育內容에 있어서 民族主体性의 確立을 爲해서 어떠한 內容의 教育을 學校에서 實施해야만 될 것인가? 또 民族主体性 涵양을 爲한 教育內容이 現行 教育目標과 教育課程에 어느 程度 반영이 되고 있는가 가 주된 關心對象이었다.

現行 教育法과 教育課程의 內容中 民族主体性 涵양과 關聯된 內容을 綜合해 보면

- ① 民主性 ② 愛國愛族의 自主性 ③ 人類平和에의 기여 ④ 民族固有文化의 계승과 양양
- ⑤ 科學的 思考力과 創意力 ⑥ 自由愛護, 責任尊重, 信義, 協同 및 愛敬의 精神 ⑦ 審美的 情緒과 화해명랑한 生活 ⑧ 生産과 消費에 있어서의 건전한 經濟生活 ⑨ 건전한 신체와 건인 불발의 기백 ⑩ 反共精神

다음으로 民族主体性의 뜻과 內容의 分類領域에 包含된 內容들은 民族主体性이란 무엇인가에 對한 解答들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本稿의 目的이 民族主体性이란 무엇인가에 對한 對答 즉 民族主体性 概念 理解의 準據를 찾는 데 있었던 것으로 本稿에서는 既民族主体性 研究에서 民

族主体性的 뜻을 理解하는 立場을 크게 두가지로, 즉 絶對的 主体性 概念과 相對的 主体性 概念으로 分類, 分析했다.

絶對的 主体性 概念은 主体性を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으로 理解하는 立場이며 그 內容을 綜
 해 보면

㉠ 民族主体性的 前提

① 經濟的 自立

政治的 獨立

文化的 獨自性

② 對等的 關係 維持

非支配 不屈從의 原則

③ 獨立性

自己保存

自己發展

㉡ 民族主体性 具現의 場面

① 受容의 主体性

② 主支的 發展의 主体性

㉢ 民族主体의 要件

① 主体意識

② 主人精神

獨立精神

責任精神

③ 主体人의 資質

○ 教養人으로서의 수양

○ 責任있는 市民의 資質

○ 韓國 사람으로서의 基本 姿勢

○ 國民的 自覺

○ 科學的인 思考方式

④ 民族意識

同胞愛

國家愛

國民的 자부심

國際協力 精神

固有文化 愛護

韓國人으로서 韓國的인 特性을 維持

다음으로 相對的 主体性 概念에 있어서는 民族主体性이란 어떤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條件들이 서로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어떤 特定한 “樣態”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主体性은 성격처럼 所有하고 있거나 所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區別된 物인 것으로 보는 立場인데 主体와 主体性은 別個의 概念으로 獨立시켜 理解하는 立場이다. 이런 立場에서 보면 民族主体性이란 “民族”과 “主体”와 “主体性”이란 獨立된 概念의 複合에서 그 意味를 찾아야 하고 民族主体性의 경우 主体가 民族이며 特定한 內容이나 特性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이 民族 즉 主体이지 主体性은 아니라는 立場이다.

本稿에서 主体性 概念은 이 相對的 主体性 概念의 立場은 取했으며 어떤 조건들이 서로 相互作用하는 樣態를 說明하기 爲해서는 文丞益의 主体性 理論 模型을 擇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 水準의 主体性 즉 原體的 主体性, 基體的 主体性을 想定하였다.

위의 主体性 概念 模型에 의해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主体性 確認 또는 評價의 準據를 提示하였다.

○ 原體的 次元(水準)

① 主体性的 準據: 單位意識이 自我準據的인가?

② 評價의 準據:

가, 小數集團(氏族, 學閥, 地緣等)의 集團意識의 民族(國家)意識을 壓勝하고 있는가?

나, 民族意識과 國家意識과의 同一性 여부

○ 我體的 次元(水準)

① 主体性的 準據: 自己意識이 自我準據的인가?

② 評價의 準據:

가, 우리 民族(國家)의 自己規定의 內容(規範, 理想, image)은 무엇인가?

나, 우리 民族(國家)의 自己規定 內容과 그 集團 構成員이 所有하고 있는 그것과의 同一性 여부

○ 本體的 次元(水準)

① 主体性的 準據: 自己意志가 自我準據的인가?

② 評價의 準據

가, 우리 民族(國家)의 內的 要求는 무엇인가?

나, 우리 民族(國家)의 目的 設定의 內容은 무엇인가?

다, 目的設定 內容과 內的 要求의 合致度 여부

라, 民族(國家)의 內的 要求와 個人的 意志와 同一性 여부

○ 基体的 次元(水準)

① 主体性的 準據：—自己行動이 自我準據의인가?

② 評價의 準據

가, 個人 또는 集團 行動과 民族(國家)의 目的設定 內容과의 同一性 여부

나, 民族(國家)의 目的 遂行能力에 對한 構成員 사이에 共同으로 所有하는 不信 여부
 以上에서 主体性 評價의 準據를 提示하였지만 앞으로 民族主体性 研究에서 解決하여야 할 問題는 허다하다

즉 우리 民族 또는 國家의 自体規定 內容이나 目的設定 內容, 그리고 그것들이 集團構成員 또는 個人들이 所有하고 있는 意識이나 意志과의 相反 여부, 따라서 어느 水準(次元)에서 主体性이 걸어보여 있고 그것을 涵양하기 爲해서 어떤 內容을 教育시켜야 할 것인가 等이다.

參 考 文 獻

文丞益, 主体理論, 서울:亞人閣, 1970

박정남, 國民教育憲章의 思想的 背景과 그 實際(연구), 서울:教育出版社, 1971

孫仁錄 外 二人, 民族主体性과 教育의 實際, 서울:한일각, 1972

申一澈, 韓國을 探求한다, 서울:담양당, 1964

안영호, 主体性과 教育論, 서울:教學社, 1969

吳天錫, 民族中興과 教育, 서울:現代教育出版社, 1963

柳樹鎮, 教育과 主体性, 서울:教學社, 1968

李光奎, “韓國人의 民族主体性”에 對하여, 68年 1月號

李奎浩, 社會化와 主体性, 서울:一益文社, 1972

李溶傑, “學校教育과 國民主体性 確立에 關한 一考” 中央教育研究所, 所報, 26號

全海鍾, 韓國과 東洋, 서울:영조각, 1972

中等教育協會, 主体性이 強한 民主的 韓國人의 形成方案, 中等教育協會, 1966

韓基彥,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Conceptual Model of Identity for National Identity Education

by

Oh, Kyung-chong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definition of national identity through many researches.

The definition of national identity in those researches was not also various but they didn't propose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Comprehend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and didn't make the clue to gain insight into the nature of national identity.

This paper was undertaken in an effort to gain an analy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which has been studied and defined from 1950 to date by many other reseachers, in order to find out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field survey on the national identity in school.

This paper has identified that there are two ways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national identity.

First, identity means the traits of one's living attitud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absolute condition for keeping identity(for example, independence, autonomy, the spirit of the master, ect.) Such a definition is called as absolute conception of identity in this paper.

Second, identity does not mean the absolute condition but it means the situational phenomena which some conditions are interrelated each other.

Not that identity is not possessed by one, only It is nothing to be differentiated.

Such definition is called as relative conception of identity in this paper.

Also this paper adopted the relative conception of identity

The specipic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a reference in assessing the concept of identity.

In order to define the situatcinal phenomena in which some condition are interrelated each other the theoretical model of identity developed by Moon, Seung-ick was

adopted in this paper, which suggested four levels of identity and those are as following:

1. identity on the level of a unit consciousness
2. identity on the level of self-consciousness
3. identity on the level of self-will
4. identity on the level of self-activity

Also this paper presents a reference in assessing the conditions of maintainance of identity and those are as following

1. on the level of a unit consciousness
 - a, whether the group consciousness of minority group has won the nation consciousness
2. on the level of self-consciousness
 - a, what are the content of our nation's self-definition(norms, ideal, image)
 - b, whether the contents of nation's self-definition is accord with those possessed by her members
3. on the level of self-will
 - a, what are the interior neede of our nation
 - b, what are the determined aim's contents of our nation
 - c, whether the aim's contents of our nation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her interior need
 - d, The interior needs of our nation is accord with the will of it's members
4. On the level of self-activity
 - a, Whether the private or group activity is accord with the aim's contents of our nation
 - b, Whether the people trusts that their nation is able to accomplish her aims.